

선운사, 영호대종사 68주기 추모제

일제시대 조선불교교정(현 종정)을 역임하고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학교 초대교장을 역임한 영호당 정호대종사의 추모제가 고창 선운사에서 봉행됐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4월 6일 근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놓은 선구자이자 대석학인 영호당 정호대종사 68주기 추모제와 역대 조사 차례제를 대웅보전과 조사전, 부도전에서 봉행했다. <사진>

영호대종사의 행장소개, 추모입정,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추모제는 문종원로 재곤 스님, 혜산 스님, 재덕 스님을 비롯한 석전문도 스님들과 前 백양사 주지 성오 스님, 본말사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석전 영호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경우 스님은 “석전 스님의 가르침 속에 오늘날의 한국불교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석전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 발전과 선운사 발전을 위해 수행과 전법교화에 더욱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음의 명찰 내장사(주지 도완)도 창건주 영은대종사를 비롯해 내장사에 주석하며 법을 펼친 역대 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차례제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죽림정사, 백용성조사 76주기 추모법회

3.1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백용성조사 입멸 76주기 추모법회가 용성조사 탄생지인 장수 죽림정사에서 봉행됐다. <사진>



4월 1일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봉행된 기념법회는 정도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신봉수 상임이사, 김용문 장수군의회 부의장, 정도회원 등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추모법회는 용성교육관에 모셔진 7여래불, 69전등조사, 7대사, 역대 104조사에 대한 차례제에 이어 용성진종조사 입멸 76주기 추모법회, 법륜 스님 즉문즉설 순으로 진행됐다.

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용성조사와 같은 애국 선열지사들의 조국과 민족을 위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불교의 지성화, 대중화, 생활화를 강조했던 용성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쉽고 바른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대중모두가 노력하자”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의 대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첫 돌 맞아

고창 선운사 사회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았다.



로 관내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북 서남권 영유아 보육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선운사(주지 경우)와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4월 2일 고창읍내 율곡뉴타운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관 1주년 기념식과 제2회 두물마당을 개최했다. <사진>

6,934㎡의 부지에 지상 2층, 건축면적 794㎡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2015년 4월 공식 개관한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74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아이 꿈 장난감 도서관, 아이들 체험놀이터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연인원 1만6천여 명의 어린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성장했다.

이날 경우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선운사 사회복지재단은 미래 국가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며 보육발전과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설과 보육환경을 조성해 영유아들이 건강한 성장을 토대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불교계에서 최초로 수탁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송 아닌 대화로 소유권 문제 풀겠다”

선암사 제30세 주지 호명 스님 취임



호명 스님

“선암사가 누구나 편안하게 정진하고, 참배할 수 있는 가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태고종 총본산 선암사는 4월 3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30세 주지 호명 스님 진산식’과 ‘화엄종주 경운 원기대선사 산고집 봉정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착어, 산고집 봉정, 행장 보고, 봉행사, 종정 혜초 스님 법어와 2부 주지 진산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종정 혜초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흥과 스님, 각 지역별 증무원장을 비롯해 5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소송에 삼보정재 사용 불합리
장자종단 조계종 양보해주길
원기대선사 산고집 봉정식도

이날 새로 취임한 호명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선암사는 천 년이 넘도록 선조 사들이 물려준 우리의 터전이며 수행도량이다. 이에 어른들의 송고한 훈을 훼손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승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선암사는 종단의 유일한 총림인 만큼 그 역할과 수행도량으로써의 면모를 보전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종 교무원 종정을 역임한 경운 원기 스님의 글, 석문, 시 등 기록을 모아 책으로 엮어 부처님 전에 올렸다.

진산식에 앞서 열린 산고집 봉정식에서는 선암사 역대 조사로 1911년 조선불교임제종 관장과 1929년 조선불교선교

산고집이 끝난 뒤 호명 스님은 특별인 터뷰에서 조계종과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재산관리인을 해지하고, 전 주지스님부터 조계종과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협상을 통해 선암사를 살리는 방법을 원한다. 삼보정재를 소송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협상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태고종 총본산 선암사는 4월 3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30세 주지 호명 스님 진산식’과 ‘화엄종주 경운 원기대선사 산고집 봉정식’을 봉행했다.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장자종단인 조계종이 선암사만큼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태고종에 양보하면 더불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도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며 살려고 노력중이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선암사는 조계종과의 분규사찰로 28세 주지 경담 스님 때 사찰재산관리인이었던 순천시를 해지하고, 조계종과 공동재산관리를 시작했다. 이후 29세

주지 설운 스님 때 조계종과의 소유권 분쟁 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호명 스님은 1962년 성일 스님을 은사로 선암사에서 출가했다. 선암사 불교전문 강원,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하고, 서울 수락산 염수사 주지, 노원불교사암연합회장,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사업부장, 태고종 중앙총회의원, 선암사 총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비참한 역사의 아픔, 지워지지 않길”

광주불교계, 위안부 피해자 천도제·문화공연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암흑기는 35년간(1910~1945) 이어진 일제강점기다. 이로 인한 민족의 아픈 자상은 오늘날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곳에 남아있다.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당국의 진심어린 사과나 참회는 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10대의 꽃다운 나이의 소녀는 할머니가 되었고, 하나 둘 생을 마감하고 있다.

시민모임 이국인 상임대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정구선 상임위원장 등 불교계와 시민단체 대표 300여 명이 참여해 할머니들의 낯을 기렸다.

4월 6일 봄비가 내리는 광주시청광장 소녀상 앞에 불교계가 마련한 정성스런 천도제와 문화공연이 열렸다.

한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 개인의 삶에도 차마 말할 수 없고,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사건이 있다. 보통은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교훈삼아 더 좋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서 “하물며 한 나라가 힘이 없어 20만이 넘는 어린 소녀들이 끌려간 비참한 역사는 감춰지거나 지워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삼아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등산 원효사(주지 현지)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낯을 위한 천도제·소녀 나비가 되어’를 개최한 것이다.

영화 귀환 조정래 감독은 영화를 통해 “한 번 상영할 때마다 한 분의 위안부 영령이 고향에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울려 퍼져 위안부 할머니들의 낯이 위로받고,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이 예

행사에는 한지 스님, 연광 스님(광주 불교연합회장)을 비롯해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광주불교계가 마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천도제 ‘소녀, 나비가 되어’에서 스님들이 바라문을 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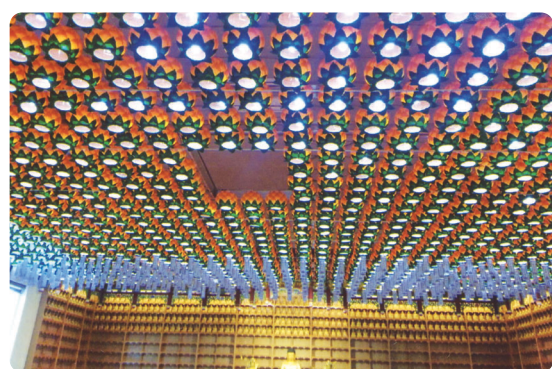
정되었던 조 감독은 위안부 할머니 두 분을 모시고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행사는 1부 극락왕생 천도제와 2부 재능기부 문화공연으로 진행됐다. 노래하는 스님인 수안 스님은 자신의 곡인 ‘환생’으로 음성공양을 올렸다. 고수 최용

씨와 함께 명창 김주희(국립국악원 단원) 씨, 가수 신자유·명자·주원기 씨도 재능기부에 동참했다. 또 우리춤무용단은 한국무용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자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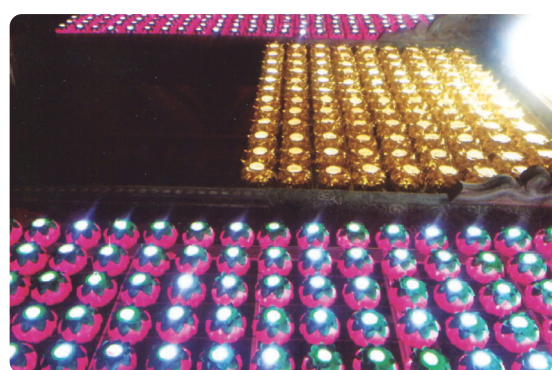
제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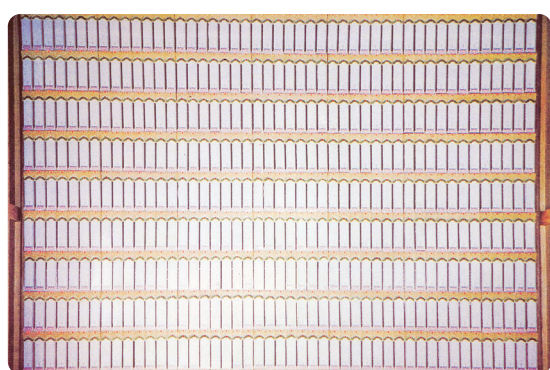
제 월



제 월



제 월



제 월



불 수 불 불



기 일 100